전매광장

박문옥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

어려움 속 행복을 나누는 사람들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연휴가 끝나고 이제 일상으로 되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다. 올해도 여느 해와 마찬가지로 거리에는 추석 인사 현수막이 걸렸고, 각종 복지시설에도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하기 위한 위문방문이 줄을 이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는 문구처럼 풍요의 상징인 추석의 모습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고향방문 자제, 모임 축소 등으로 올해는 낯설게만 느껴지는 말이다.

풍요로움과 넉넉함으로 기뻐해야할 명절에도 우리 주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이웃, 끼니를 걱정하며 홀로 사는 노인, 그리고 각종 생활고를 겪으며 힘든 시간을 보내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이웃들이 많이 있다. 평소 같으면 배식봉사, 반찬배달봉사활동 등 사회적 도움이 원활하게 이뤄졌겠지만, 코로나19의 거리두기와 기나긴 연휴는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더 외롭고 힘든 시간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

행정 손길 닿지 않는 곳 봉사

필자는 이번 명절을 보내며 이제껏 행정이 다가가기 힘든 이러한 역할을 묵묵히 수행해 주신 수많은 봉사자분들의 숭고한 노력에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자원봉사자의 역할은 행정의 손길이 닿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에 민간의 도움으로, 어렵고 힘든 취약계층을 돕기 때문에 지역사회 내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그리고 사회 전반 모든 영역에 걸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곳이 없다 할 정도로 수많은 일을 수행하고 있다.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장애인, 노인, 재난현장, 교통, 각종 행사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은 왕성하다.

전남도의 경우 지난해 말 기준 약 10만여명(연인원 약 54만명)의 자원봉사자가 활동 중이며 각 영역에서 자신의 여건에 맞는 봉사 활동을 펼치고 있다. 복지 사각지대 뿐만 아니라 재난현장에서 구호와 복구 활동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성과를 내고 있으며, 지난 해 전남 동부권에 발생한 수해 현장에도 이들은 어김없이 달려가 폐기물 철거활동, 급식제공, 도배, 장판교체 등 수많은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예우·자긍심 고취 고민해야

최근 전남도와 도의회는 고령화와 농어촌 마을이 많은 전남의 특성상 홀로 사는 어르신, 바쁜 농번기에 큰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되는 세탁차량 1대를 추가로 전남자원봉사센터에 전달해 봉사자들의 활동을 지원했다. 실제 재난 현장에서의 세탁 봉사활동은 지난해 많은 성과를 올렸고, 또 좋은 평가를 받았기에 더 많은 도민에게 혜택이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전남도는 자신이 가진 능력과 재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각종 재난 시 긴급구호, 복구지원, 의료방역 등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300명의 '긴급자원봉사단'도 발족해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재해복구 인력도 운영하고 있다.

이토록 자원봉사는 행정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수많은 분야에서 행정기관을 대신해 사회 안전망 구축의 역할을 담당하기에 이를 지원·장려하고, 또 봉사자에 대한 예우에도 더욱 관심을 가지고 배려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을 만나면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신다. 돈을 벌기 위해 하는 일이 아니라 남을 도움으로써 내가 행복해지고, 보람을 느끼기에 봉사를 할 것이다.

전남도에서도 '자원봉사마일리지제' 운영을 통해 일정 시간 이상 봉사하신 분들에게 공공 전시관 입장료 무료와 아직은 부족하지만 할인가맹점 유치를 통한 다양한 혜택이 자원봉사자 분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건강검진, 주차장 이용, 화장장 이용 등 다양한 예우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대가를 바라지 않는 자발적인 참여로 운영하고 있지만 봉사자의 명예를 드높이고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여러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도민이 행복한 삶, '행복의 상관관계'를 의미있고, 가치있는 삶에서 찾을 수 있도록 전남도가 더욱 힘써주길 바란다.

사설

호남민심 아전인수로 평가하지 말라

호남에서 소위 추석 밥상머리 화두는 단연 명낙대전의 승자에 관한 것이었다고 여겨진다. 오는 25일 광주·전남, 26일 전북에서 치러지는 더불어민주당 경선에서 여권 후보의 윤곽이 잡힐 가능성이 높아 전국의 관심이 이 지역으로 쏠려 있다. 이재명 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 간 운명의 대결이다.

앞서 충청도와 대구·경북, 강원 대의원·권리당원 투표 및 1차 선거인단 투표 결과를 모두 합친 '1차 슈퍼위크'에서 이재명 후보가 과반에 성공했다. 이낙연 후보를 20% 포인트 이상 앞섰다. 여세를 몰아 본선 직행의 고삐를 죄려는 이 지사와 국회의원직 사퇴 배수진을 치고 역전드라마를 쓰려는 이 전 대표 간 치열한 표심 잡기 경쟁이 벌어졌다. 특히 지난 13일 전북 출신 정세균 전 총리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선 결과가 나오면서 중도 하차, 호남 경선은 더욱 뜨겁게 달아올랐다고 해야 할 것이다.

주지하는 것처럼 호남은 민주당 심장부로 여기서 1위를 한 후보가 최종 승리했다는 점에서 이번 경선 결과는 절대적이다. 70만 명의 민주당 권리당원 가운데 호남이 30%(20만여 명)를 차지하고 수도권의 호남 출신들에게도 크게 영향력을 미칠 것이다. 호남 경선은 최대 승부처이며 대권가도의 전환점으로 호남에 올인하지 않으면 안 된다.

호남 민심은 과연 '될 사람'을 찍을지, 아니면 '되어야 할 사람'을 찍을지 곧 판가름 낼 것이다. 소위 호남의 전략적 투표가 어떻게 표출될지 비상한 관심이다. 이에 각 캠프마다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고 있지만 어디까지 자기편의 생각이다. 호남인들은 될 사람도, 되어야 할 사람도 아닌 올바른 대한민국 대통령감을 뽑을 것이다. 각 후보는 이틀 앞으로 다가온 호남대첩의 결과를 겸허히 수용해야 할 것이다.

이제는 위드코로나 철저히 준비하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추석연휴 지역 간 밀접접촉 사례로 잇따라 확인되고 있다. 보건당국에 따르면 22일 0시 기준, 전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720명 발생했다. 추석명절 연휴로 귀성·귀경 행렬이 잇따르면서 전국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이에대한 준비가 철저해야 한다.

광주지역은 하루동안 40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는데 10명이 수도권과 전남 등 대부분 추석명절 기간동안 지역이동으로 확진된 사례다. 방역당국은 닷새 간 연휴로 부모들이 출근하지 않고 자녀들이 등교하지 않았기 때문에 별도의 전수조사는 실시하지 않을 것으로 전했다.

전남지역은 이날 0시 기준 광양·순천 4명, 신안 3명, 고흥·목포·여수·완도 각 2명, 담양·무안·영암·해남 각 1명 등 총 23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 가운데 확진자 10명이 타지역 거주자다. 이중 8명은 명절을 맞아 고향을 방문했다가 거주지 방역당국에서 접촉자로 분류돼 코로나19 검사 안내를 받았다.

현재 추세라면 이달 말 하루 환자가 4,000명대까지 치솟아 점진적인 '위드 코로나'로 일상을 회복하려던 정부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게 된다. 모였다가 감염되면 그게 불효가 되는 시대다.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들은 이동을 자제하고, 1차 접종자나 접종완료자도 가족 간 만남은 짧게 끝내는 것이 좋다.

명절 연휴는 가뜩이나 응급 환자가 폭증하는 시기다. 코로나 의심 환자들까지 몰려들 경우를 감안해 보건 당국은 응급의료 체계가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한다. 정부는 추석연휴 이후 본격적으로 논의될 위드 코로나에 대비해 병상 확충과 재택치료 체계 구축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에세이

걸음의 방식

박덕은
문학박사·화가·전 전남대 교수

지나왔던 길을 되짚어보면 수많은 걸음들이 보인다. 홀로서기 위해 아등바등했던 청춘의 걸음이 보이고, 어지러운 슬픔 안고도 자식을 키우기 위해 바들거렸던 중년의 걸음도 보인다. 그 걸음들이 모여 사랑이라는 집을 짓고 삶의 탑을 쌓으며 여기까지 왔다.

생각해 보면, 생의 전환점마다 걸음의 방식은 달랐다. 현실로부터 몸을 숨기고 싶을 때는 땅에 발을 채 내딛지 않고 도망치듯 걸었다. 그러다가 일이 잘 풀릴 때면 아침의 걸음처럼 가볍고 산뜻하게 걸었다.

어렸을 때였다. 방문을 열었는데 방안까지 걸어 들어온 아침 햇살이 상큼했다. 햇살, 그 아침의 걸음은 이제 막 눈을 뜬 꽃잎처럼 화사했다. 가볍게 반짝이는 걸음은 어둠의 지층을 뚫고 올라온 기쁨이요 시작을 대하는 설렘이었다. 나는 아침의 걸음처럼 모든 날들을 반짝이는 마음으로 걷고 싶었지만, 숨막히게 분주한 청춘의 한낮을 헉헉대며 종종걸음으로 건너야 했다.

결혼하고 가족이 생긴 뒤부터 귀갓길 걸음은 따스해졌다. 아이들에게 줄 과자를 사 들고 통통 튀듯 걸었다. 저녁의 걸음은 세상의 모든 생명들을 집으로 돌아가게 했다. 초원에서 풀을 뜯던 양떼도 양우리로 돌아갔고, 새들도 고단한 나래짓을 접고 둥지로 돌아갔다.

하루를 끌고 오느라 피멍 든 노을의 걸음이 모든 걸 내려놓고 비우는 때도 이때쯤이다. 불덩이처럼 타오르는 청춘의 시간을 소진하고 노년 같은 어둠 속으로 서서히 사라지는 노을의 걸음이 조금은 무겁고 어눌해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땅거미가 깔리고 조금씩 지워져 가는 노을의 붉은 걸음은 애잔하다. 쇠락해져 가는 삶의 여정을 보는 것 같아 조용히 묵상하게 된다.

칠순이 되던 어느 날이었다. 전시회를 준비하며 그림을 걸고 있는데, 갑자기 오른쪽 엉덩이와 허벅지에 마비가 왔다. 그때부터 지팡이에 의지하며 굴곡진 시간을 고통스레 걸어야 했다.

하루는 고단한 행로를 굽이굽이 넘어가는 노을의 걸음이 마비가 온 내 노년의 걸음 같아 노을 진 풍경에 눈을 뗄 수가 없었다. 석양은 노을빛의 하늘방을 서녘에 만들더니 고단한 새들이 쉴 수 있도록 그 방을 내주었다. 따스한 노을의 품에서 위로를 받았다. 노을은 한 벌의 침묵을 걸치고 참선하러 들어간 스님의 뒷모습 같았다. 그때, 내가 가야 할 인생길을 묻고 싶었다. 노을은 내가 어떤 걸음을 걸어야 할지 알려줄 것만 같았다.

입적을 앞두고 있는 마지막 걸음을 본 적이 있다. 화순 운주사에 와불로 누워 있는 그 걸음. 일몰을 앞두고 있는 노을의 걸음 같았다. 라틴어에 '메멘토 모리'라는 말이 있다. '죽음을 기억하라'는 의미다. 죽음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인생길을 걷는 걸음 걸음이 더 값질 수 있다는 뜻이다. 와불은 인생의 마지막 걸음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듯하다. 몸속을 가득 채운 아픔 속에서도 모든 것을 비우고 내려놓으며 수행자들을 품는 마지막 걸음이 읽혀져 마음이 아리다.

그래서 그런지 늦가을 노을의 걸음은 운주사의 그 마지막 걸음 같아서 더 쓸쓸하다. 이제 곧 소멸해 가는 겨울로 들어서고 있다는 것을 알아서일까. 황홀한 계절은 사라지고, 지우고 비워야 하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느껴서일까. 늦가을 노을은 내 마음속을 한껏 센치하게 만든다.

쇠락해져 가는 지상의 모든 것들에게 측은지심으로 다가가는 그 걸음에서 따스함을 느낀다. 낙엽 위로 어스름을 끌어와 덮어 주는 늦가을 노을의 걸음이 왜 그리 따스하면서도 쓸쓸했는지 이제 조금은 알 것 같다.

마비가 왔던 다리는 다행히 보름 뒤부터 풀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언제라도 마비 증상은 다시 올 수 있기에, 더 늦기 전에 생의 마지막 걸음을 준비해야 한다.

인생의 늦가을인 노년으로 접어든 나는 이제부터 노을의 걸음을 익혀야 한다. 일몰처럼 갑자기 생의 시계가 멈출지라도, 후회하지 않도록 마음을 비우며 영혼이 여린 생명들을 포근하게 품어야 한다. 노을은 비움의 빛깔로 여린 것들을 감싸며 누군가의 가슴에 따스하게 다가간다. 나의 여생도 노을의 걸음처럼 그리됐으면 좋겠다. 해가 지고 있다. 저녁 위로 노을이 붉게 걸어오고 있다.

독자광장

공원에서의 취식과 음주 자제해 주세요

2019년 12월부터 시작됐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4번의 명절을 보냈음에도 꺾이지 않고 있다.

광주 지역의 확진자는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일 평균 30명을 웃돌고 있는 등 점점 상황이 악화되고 확진자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꾸준하게 증가하는 코로나19 확진자로 인해 답답한 시민들은 밤 10시 이후 통제되는 음식점, 술집 등이 아닌 집 근처에 있는 공원이나 광장을 찾아 답답함을 해소하러 간다.

공원에 가보면 대부분의 시민들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지만, 돗자리에 앉아 있는 시민들은 옹기종기 모여 턱스크를 하거나 아예 벗어 던지며 자유를 만끽한다. 하지만 이같은 행동은 코로나19 확산에 치명적인 행동이다.

코로나19로 힘든 것은 나 하나 뿐만이 아니며, 대다수의 시민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고 있는데, 젊은 층을 중심으로 공원에 가보면 술집이라고 해도 믿을 만큼 사람이 모여있다.

뿐만 아니라 방역수칙은 소홀해지고 음식을 먹고 치우지 않아 공원 내 쓰레기 및 악취를 발생하게 하며 결정적으로 소음으로 인해 주변 시민들에게 지속적인 피해를 주고 있다.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단 접종완료자 포함 8인까지 가능)를 위반하게 되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며, 도시공원법에 의해 공원 내에서 심한 소음 또는 악취가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 오물 또는 폐기물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 버리는 행위 등을 할 경우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 될 수도 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코로나19 확산 위험이 대단히 크다는 것이다. 공원 내 금지행위로 인한 위반보다 스스로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할 수 있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기대해 본다.

/나태환 서부경찰서 경비작전계 경장

코로나 시대 주목받는 온라인 행사

기자수첩

길용현
정치부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 축제·전시 등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축제나 공연을 취소하거나 축소하는 것을 당연시 하는 분위기였지만 최근 들어 온라인을 이용한 축제·전시가 큰 성과를 내고 있어 눈길을 끈다.

지난 1일 61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한 2021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는 개막 14일 만에 7만 6,000명의 관람객을 끌어모았다. 이 기간 관람객은 목포·진도 주 전시관에 7,341명, 광양·광주 등 4개 특별전에 5,817명, 9개 시군 기념전에 4,574명 등 총 1만 7,732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국제수묵비엔날레 누리집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전시관에는 현장 관람을 하지 못한 관람객 5만8,762명이 방문했다.

이는 당초 관람객 목표 30만명의 25%를 넘어선 규모이며, 전체 관람객 중 온라인 관람객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77%에 달한다.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가 코로나19 시대 온라인 전시문화의 새 모델을 제시하며 순항하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는 이유다.

또 지난 5일 성황리에 폐막한 2021 명량대첩축제의 다양한 랜선 프로그램은 시청자들의 이목을 끌며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냈다. 특히 울돌목 온에어 공개방송, 명량 랜선 투어, 남도민속여행, 이순신 가무악 등은 온라인 역사문화축제를 전국으로 한껏 알리는 기폭제로서 역할을 톡톡히 했다는 평가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생활 패턴이 급속하게 온라인 비대면화 되고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19 유행속에 지자체들도 행사 취소 대신 온라인 개최 등을 고심하고 있다.

이제는 사람이 많이 모여야 공연·축제 등이 성공을 거뒀다는 기존 인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

이번 수묵비엔날레와 명량대첩축제의 사례를 모델로 삼아 양질의 콘텐츠와 지속 가능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전남도와 관계기관들의 유기적인 협력 관계 구축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길 바란다.

생활정보전화		긴급전화	
▲이주여성 긴급전화	1577-1366	▲기상예보	131
▲응급질병상담	1339	▲법률구조상담	132
▲미아·가출인 신고	182	▲인광 알코올 상담센터	222-5666
▲여성 긴급전화	1366	▲광주 여성의 전화	363-7739
▲청소년 상담 지원센터	1388	▲수도 고장신고	121
▲아동보호전문기관	1577-1391	▲전기고장 신고	123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가스사고 신고	383-0019
▲응급의료센터	1339		

※외부 필자의 글은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1989년 6월 29일 창간 전남매일 2005년 9월 21일 등록번호 광주가 14(일간)
회장 朴哲弘 대표이사·발행인·편집인 金善男 편집국장 姜聲秀
대표전화 062) 720-1000 구독 신청 및 배달안내 720-1004, 010-4601-5323

정치부 (062) 720-1060~62	편집부 (062) 720-1073	기사제보
경제부 (062) 720-1066~67	논설실 (062) 720-1006	•TEL (062) 720-1050~53
사회체육부 (062) 720-1050~53	전산실 (062) 720-1033	•사회부장 010-5601-2219
사회2부 (062) 720-1043	월간국 (062) 720-1007	•FAX (062) 720-1080
동부권본부 (061) 743-4200~01	판매국 (062) 720-1004	•E-mail jndn@chol.com
문화부 (062) 720-1071	사업국 (062) 720-1011,1099	광고문의
사진부 (062) 720-1040	광고국 (062) 720-1016~17	•TEL (062) 720-1016~17
기획탐사부 (062) 720-1045~46	관리국 (062) 720-1012	•FAX (062) 720-1020
		•E-mail jnmi1000@hanmail.net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우) 61639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좌로 398 (사동)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